

# 화물 고박·승객 확인 부실...아직도 먼 안전의식

### ■ 세월호 참사 1년...전남 연안 여객선 타 보니

### 구명조끼 착용법 등 안내방송 없고 승객도 무관심

### 발권·개찰·승선 꼼꼼히 확인...일부 개선된 모습도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참사 이후 정부는 '해상 안전'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4월 16일 이전과 전혀 다른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면서 탑승 절차를 강화하고 비상 상황이 발생할 때의 행동 요령 등 안전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했었다.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다가왔다. 광주·전남 지역 여객선 운항 실태가 달라졌을까. '살마, 관창을 거야'라는 근거없는 낙관주의에 밀린, '대충 대충' 부실한 안전 의식은 여전했다.

탑승 인원 확인도, 화물 고박도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했다. 여객선에서 비상대피로, 구명조끼 위치, 비상 상황이 발생할 때의 행동 요령 등 필수적 안내방송은 커녕, 구명조끼 착용법 등의 방송이 나오지 않아도 관심을 기울이는 승객도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세월호 참사 직후 정부가 쏟아낸 안전 강화 정책과 지도·점검 강화 등 세월호 학습효과 탓에 일정부분 여객선 안전이 향상된 것은 부인할 수 없었다.

지난 12일 낮 12시20분 완도여객터미널에서 청산도로 출항한 여객선 대흥고속카페리호(424t·정원 350명)는 승선인원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발권단계에서는 신분증 확인이 비교적 잘 이뤄졌지만, 개찰·승선 과정에서는 승선권만 회수했을 뿐 신분증 확인이 생략됐다.

차량을 가지고 탑승한 승객의 경우 차량안까지 인원 점검은 이뤄지지 않았고, 탑승한 승객들은 출발전 완료가 자유로워 정확한 탑승객 파악은 쉽지 않아보였다.

전날 탑승했던 비금농협카페리호(307t·최대 승선 184명)도 마찬가지였다.

세월호 침몰의 한 원인으로 지목받았던 '부실한 화물 고박'은 개선되지 않았다.

출항 초기 꼼꼼히 차량 등을 고박했던 여객선은 선원들에 의해 도착 10~20분 전 모두 풀려버렸다. 완도와 청산도를 오가는 여객선도, 팽

목항과 관매도를 운항하는 한림페리 3호(113t·정원 145명), 여수와 금오도를 오가는 한려페리호(178t·정원 219명), 비금도와 목포 북항을 오가는 여객선 가운데 접안을 기다려 고박을 풀 배는 없었다.

출항 이후 승객들에게 영상과 소리로 전달해야 할 구명동의 착용법 등 안내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청산도행 대흥고속카페리호의 경우 맨 꼭대기 층에는 승객이 50여명이나 있었지만 안내방송은 이뤄지지 않았고, 관매도행 한림페리 3호도 TV화면을 통해 안내가 이뤄졌지만 소리는 흘러나오지 않았다.

한림페리 3호의 경우 구명동의 30개를 보관하는 함의 문고리가 녹슬어 문이 열리지 않는 상태로 오랜 기간 운항을 해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실한 고박과 승선인원 확인, 안내방송 등을 탑승했던 대부분의 여객선에서 확인할 수 있었지만, 1년여 전 세월호 참사를 지켜봤던 승객 누구도 이를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목적이 다가가올수록 하선을 빨리 하기 위해 갑판으로 갑판 끝으로 몰려들었다.

여전히 불안감을 안고 운항하는 여객선에서도 조금씩 '안전'이 자리 잡는 모습은 관찰됐다. 팽목항과 관매도를 오가는 한림페리 3호, 여수와 금오도를 오가는 한려페리호, 목포와 비금도를 오가는 비금농협카페리호는 선원 신분을 드러내는 유니폼을 입은 선원들이 없었기에 배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승객의 안전을 살폈다.

한림페리3호와 한려페리호의 경우 발권과 개찰, 승선 과정에서 탑승객 신원을 꼼꼼히 확인하려는 선원들의 모습은 세월호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이였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박기용기자 pbx@kwangju.co.kr



녹슨 구명동의함 잘 안열리고



도착하기 전 차량 고박 풀고



구명조끼·소방장비 뒤섞이고



## 한빛원전 3호기 가동 재개

### 원자력안전위 승인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영광)원자력본부는 정기점검을 마친 한빛 3호기 가동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한빛원전은 지난 10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재가동 승인을 받아 이날 새벽 5시21분 발전 재개에 들어갔다. 가동을 재개한 한빛 3호기는 오는 15일 100% 정상출력에 도달할 예정이다. 한빛 3호기는 지난해 10월 중기발전기 세관이 파손돼, 외부로 방사성 물질 일부가 유출되면서 정기 예방점검을 당당해 실시해왔다.

이 과정에서 한빛 3호기 중기발전기 내부에서 쇳조각(1.8mm 이내)과 너트 등 이물질 87개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한 원전 측은 이물질 53개는 제거했으나 나머지 34개는 고착화돼 제거하지 못했다. 중기발전기는 원자로에서 뜨겁게 가열한 냉각수를 가느다란 관으로 순환시켜 증기를 생산하고, 원전은 이 증기를 이용해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한다.

한빛원전 측은 제거하지 못한 이물질을 감안해 중기발전기와 원전 가동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다음 한주기(18개월) 동안은 안전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한빛원전 측은 중기발전기 안전성에 우려를 표시하는 주민·환경단체의 의견을 감안, 전력수요가 떨어지는 내년 2월 한빛 3호기 가동을 중단하고 18개월마다 진행되는 정기 점검을 당당해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영광=이준용기자 jylee@kwangju.co.kr

## '나쁜 아빠'...갓난아기 상습폭행

자신의 갓난아기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30대 가장이 아이를 치료한 의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은 12일 생후 3개월 된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박모(39)씨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3월 광주시 북구 자택에서 자신의 딸이 '울고 보겠다'는 이유로 얼굴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 1월 생후 3주 된 딸의 머리와 뺨을 때리는 등 최근까지 최소 7차례에 걸쳐 아이가 울거나 보채면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의 범행은 최근 자신에게 폭행을 당해 두개골 미세 골절 진단을 받은 딸을 치료한 의사가 경찰에 학대(폭행) 의심 정황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딸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용기자 pbx@kwangju.co.kr

## 광주·전남 세월호 추모 행사 잇따라

### 제사 지내고 '기억의 숲' 기념식수

### 5월단체 등 진도 방문 유족 위로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둔 주말과 휴일 광주·전남지역에서 추모 행사가 잇따랐다. 지난 11일 세월호 일반인 유가족 70명과 특별

조사위원회가 진도 팽목항과 사고해역을 찾아 헌화했다. 일반인 유가족은 사고 당시 세워졌던 팽목항 임시 선착장에서 제사상을 차려 희생자의 넋을 기렸다. 경비정을 타고 사고 해역의 부표 주변을 순회하기도 했다.

같은 날 오후여미니집과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등 5·18 관련 단체도 진도 팽목항을 찾아

유족을 위로했다. 팽목항 방파제에는 '5·18 엄마가:16 엄마에게'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어 '당신 원통함을 내가 아오. 힘내소, 쓰러지지 마시오'라는 문구를 적었다.

앞서 10일에는 희생자 추모공원에 조성할 '세월호 기억의 숲' 기념 식수가 열렸다. 식수 행사는 진도 팽목항에서 4km 떨어진 임회면 백동무궁화동산에서 개최됐다. 희생자 가족과 오드리 헬렌 아들 선 헬렌 페리, 전남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월호 희생자를 기리는 노란 리본을 뜻하는 은향나무 30그루를 심었다.

한편 세월호 참사 광주시민대책위가 선포한 추모주간인 오는 17일까지 곳곳에서 추모행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참사 1주기 하루 전날인 15일에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 500여명이 팽목항과 팽목수로를 찾는다. 16일에는 팽목항에서 세월호 참사 진도군 범군민대책위원회 주최로 추모식이 열린다. 광주시 동구 금남로와 5·18 민주광장 일대에서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와 인양을 촉구하는 광주시민대회가 시민대책위 주최로 열린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 출소 일주일만에 또 무전취식한 전과 40명



○...무전취식으로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일주일 만에 또다시 무전취식을 일삼은 전과 40명의 30대 남성이 경찰서행.

○...12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성모(32)씨는 지난 7일 새벽 2시에 광주시 남구 백운동 김모(여·50)씨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맥주와 안주 등 11만5000원 상당의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빠져나왔다는 것.

○...성씨는 유흥주점을 들머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다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지난달 30일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담당 경찰은 "(성씨가) 여죄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 누번 기간인 것을 감안해 사전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설명. /박기용기자 pbx@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사건번호	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액 [단위: 원]	비고
2014타경 6091	1	해남군 화산면 방호리 563 2235㎡	답	17,289,000	일출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4타경 6107	1	해남군 관내면 서상리 76 1855㎡ [현황전일]	답	13,170,5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분묘수조
2014타경 6169	1	완도군 노항읍 동천리 106 918㎡	산	14,986,800	일출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4타경 6244	1	해남군 화산면 송호리 1311-3 2290.6㎡ [대각도로인해발수되지않는순취지상권일출]	산	16,095,74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해리대상아닌교합선발할일출
2014타경 6312	1	진도군 고군면 원포리 368 483㎡ [박정철지주]	전	4,167,780	일출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지분매각, 공유자우선매수권취득사제한
2014타경 6329	1	완도군 완도읍 관내리 1059 963㎡	전	28,89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분묘수조
2014타경 6480	1	완도군 완도읍 관내리 1059 963㎡	전	28,89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분묘수조
2014타경 6633	1	해남군 화산면 옥동리 251-3 1228㎡	답	39,516,800	일출매각, 목축1,2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4타경 6633	2	해남군 화산면 부곡리 815 1970㎡ [현황전일]	답	14,775,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4타경 6633	3	해남군 화산면 부곡리 815 1970㎡ [현황전일]	답	14,775,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4타경 6640	1	진도군 지산면 가차리 396-1 5878㎡ [농지취득자격증명요]	전	39,624,000	일출매각, 분묘수조
2014타경 6640	2	해남군 화산면 옥동리 251-3 1228㎡	답	39,516,800	일출매각, 목축1,2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4타경 6725	1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17-5 4229㎡ [현황전일]	전	105,725,000	미국대상이나농업경지일출부도,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4타경 6725	2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17-5 4229㎡ [현황전일]	전	105,725,000	미국대상이나농업경지일출부도,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4타경 6794	1	해남군 계곡면 장소리 산22 3372㎡	답	1,820,880	일출매각, 목축1,2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4타경 6800	1	해남군 화산면 화산리 1071-3 1375㎡	답	110,136,000	일출매각, 현황전일, 분묘수조